모바일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 PC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Source | 국문 번역 (DeepL) | 원문 기사 |
|---|---|---|
| Official Announcement | 아스트라제네카, 차세대 암 치료용 방사성 결합체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퓨전 인수<br><br>전립선암의 PSMA를 표적으로 하는 악티늄 기반 임상 단계 방사성 결합체, 방사성 결합체 파이프라인, 최첨단 R&D 및 제조 시설을 포함합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가 차세대 방사성 결합체(RC)를 개발 중인 임상 단계 바이오 제약사 퓨전 파마슈티컬스(Fusion Pharmaceuticals Inc.)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과 같은 기존 요법을 보다 표적화된 치료법으로 대체하여 환자의 암 치료와 결과를 혁신하고자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br><br>방사성 동위원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암 치료에서 유망한 치료법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항체, 펩타이드 또는 저분자와 같은 분자를 사용하여 정밀한 표적화를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세포에 직접 전달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건강한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외부 빔 | **AstraZeneca to acquire Fusion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s to treat cancer**<br><br>***Includes actinium-based clinical-stage radioconjugate targeting PSMA for prostate cancer, pipeline of radioconjugates and state-of-the-art R&D and manufacturing facilities***<br><br>AstraZeneca has entered into a definitive agreement to acquire Fusion Pharmaceuticals Inc., a clinical-stage biopharmaceutical company developing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s (RCs). The acquisition marks a major step forward in AstraZeneca delivering on its ambition to transform cancer treatment and outcomes for patients by replacing traditional regimens like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with more targeted treatments.<br><br>RCs have emerged as a promising modality in cancer treatment over recent years. These medicines deliver a radioactive isotope directly to cancer cells through precise targeting using |

| | | |
|---|---|---|
| | 방사선으로 도달할 수 없는 종양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여 많은 잠재적 이점이 있습니다.<br><br>이번 인수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서 가장 진보된 프로그램인 FPI-2265를 포함한 Fusion RC 파이프라인을 추가함으로써 선도적인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PI-2265는 전립선 특이적 막 항원(PSMA)을 표적으로 하며, mCRPC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로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br><br>이번 인수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악티늄 기반 RC에 대한 새로운 전문성과 선구적인 R&D, 제조 및 공급망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회사의 입지와 캐나다에 대한 헌신을 강화할 것입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의 종양학 R&D 부문 수석 부사장 수잔 갤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암 환자의 30~50%가 치료 중 어느 시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으며, Fusion 인수는 차세대 방사성 결합체를 통해 이러한 치료 측면을 혁신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퓨전과 함께 전립선암의 잠재적 새 치료제로서 FPI-2265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퓨전의 혁신적인 악티늄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사성 접합체를 기초 요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molecules such as antibodies, peptides or small molecules. This approach has many potential advan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radiotherapy including minimising damage to healthy cells and enabling access to tumours not reachable through external beam radiation.<br><br>This acquisition complements AstraZeneca's leading oncology portfolio with the addition of the Fusion pipeline of RCs, including their most advanced programme, FPI-2265, a potential new treatment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FPI-2265 targets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 a protein that is highly expressed in mCRPC, and is currently in a Phase II trial.<br><br>The acquisition brings new expertise and pioneering R&D,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capabilities in actinium-based RCs to AstraZeneca. It also strengthens the Company’s presence in and commitment to Canada.<br><br>Susan Galbraith, Executive Vice President, Oncology R&D, AstraZeneca, said: “Between thirty and fifty per cent of patients with cancer today receive radiotherapy at some point during treatment, and the acquisition of Fusion furthers our ambition to transform this aspect of care with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s. Together with Fusion, we have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

| | | |
|---|---|---|
| | 존 발리언트, 퓨전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업계를 선도하는 방사성의약품 R&D, 파이프라인, 제조 및 악티늄-225 공급망을 포함한 퓨전의 방사성 결합체 전문성과 역량을 아스트라제네카의 저분자 및 생물학적제제 엔지니어링 분야 리더십과 결합하여 새로운 방사성 결합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GFR-cMET 표적 방사성 결합체 FPI-2068을 임상 1상 시험으로 발전시킨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기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환자 치료 결과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방사성 결합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br><br>퓨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완전 소유 자회사가 될 것이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 development of FPI-2265 as a potential new treatment for prostate cancer, and to harness their innovative actinium-based platform to develop radioconjugates as foundational regimens."<br><br>John Valliant, Chief Executive Officer, Fusion, said: "This acquisition combines Fusion's expertise and capabilities in radioconjugates, including our industry-leading radiopharmaceutical R&D, pipeline, manufacturing and actinium-225 supply chain, with AstraZeneca's leadership in small molecules and biologics engineering to develop novel radioconjugates. Expanding on our existing collaboration with AstraZeneca where we have advanced FPI-2068, an EGFR-cMET targeted radioconjugate into Phase I clinical trials, gives us a unique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s with the aim of transforming patient outcomes."<br><br>Fusion will becom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AstraZeneca, with operations continuing in Canada and the US. |
| BioPharma Dive | 아스트라제네카, 24억 달러 규모의 Fusion 인수로 방사성 의약품 거래 행렬에 합류하다. | **AstraZeneca joins radiopharmaceutical deals spree with $2.4B buyout of Fusion** |

| | | |
|---|---|---|
| | 이번 거래는 최근 몇 달 동안 방사성 의약품 개발업체를 인수한 세 번째 사례로, Eli Lilly와 BMS의 유사한 거래에 이은 것입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상당한 규모의 베팅을 한 최신 대형 제약 회사로, 화요일에 최대 24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로 오랜 생명공학 파트너인 Fusion Pharmaceuticals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퓨전의 모든 주식을 주당 21달러, 약 2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영국 제약회사는 Fusion이 지정되지 않은 규제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우발적 가치 권리'라는 금융 상품을 통해 주당 3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퓨전이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인수 금액은 24억 달러에 달합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월요일에 주당 10.64달러에 거래를 마친 퓨전 주식에 대해 97%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br><br>바이오파마 다이브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2024년 11번째 바이오제약 기업 인수로, 최소 6년 만에 가장 빠른 M&A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일라이 릴리가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14억 달러에 인수하고 12월 BMS가 레이즈바이오를 41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최근 방사성 의약품 제조업체와 관련된 세 번째 대형 거래입니다. | The deal is the third recent buyout of a radiopharmaceutical developer in recent months, following similar deals from Eli Lilly and Bristol Myers Squibb.<br><br>AstraZeneca is the latest large pharmaceutical company to make a sizable bet on radiopharmaceutical drugs for cancer, agreeing on Tuesday to acquire longtime biotechnology partner Fusion Pharmaceuticals in a deal worth up to $2.4 billion.<br><br>AstraZeneca will acquire all of Fusion's shares for $21 apiece, or about $2 billion. The British drugmaker could add another $3 per share via a financial instrument known as a "contingent value right" if Fusion meets an unspecified regulatory milestone. Should Fusion hit that mark, the buyout would be worth $2.4 billion.<br><br>AstraZeneca is paying a 97% premium for Fusion's shares, which ended trading on Monday at $10.64 apiece.<br><br>The deal is the 11th biopharmaceutical buyout in 2024, adding to the sector's fastest M&A start in at least six years, according to BioPharma Dive data. It's also the third recent large transaction involving a maker of radiopharmaceuticals, following Eli Lilly's $1.4 billion deal for Point |

| | | |
|---|---|---|
| | 방사성 의약품은 종양에 직접 목표 용량의 방사선을 전달하는 복합 의약품입니다. 이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기술 발전과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의 성공으로 인해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회사는 방사성 의약품이 한 세기 이상 사용되어 온 방사선 치료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br>"오늘날 암 환자의 30~50%가 치료 중 어느 시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으며, Fusion 인수는 차세대 방사성 접합체로 이러한 치료 측면을 혁신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더욱 강화합니다."라고 AstraZeneca의 종양학 연구 및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 Susan Galbraith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br><br>최소 12개의 생명공학 스타트업과 소수의 상장 기업, 그리고 현재 여러 대형 제약사가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플루빅토 및 노바티스의 또 다른 치료제인 루테라와 동일한 표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약물 성분은 다릅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른 암 관련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br><br>2020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하고 있는 퓨전은 플루빅토를 쫓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선도 약물은 전이성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이며 현재 2상 시험 중입니다. 퓨전의 약물은 플루빅토와는 다른 | Biopharma in October and Bristol Myers Squibb's $4.1 billion takeout of RayzeBio in December.<br><br>Radiopharmaceuticals are complex medicines that deliver a targeted dose of radiation directly to a tumor. Though the field has been on the industry's radar for decades, technological advances and the success of Novartis' prostate cancer drug Pluvicto have led to a surge in investments. Many drugmakers see radiopharmaceuticals as supplanting radiation therapy, a blunt force that's been around for more than a century.<br><br>"Between 30 and 50% of patients with cancer today receive radiotherapy at some point during treatment, and the acquisition of Fusion furthers our ambition to transform this aspect of care with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s," said Susan Galbraith, AstraZenec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onc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 statement.<br><br>At least a dozen biotechnology startups, a handful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and now multiple large drugmakers are developing radiopharmaceuticals. Some are going after the same targets as Pluvicto and another Novartis therapy, Lutathera, but with different drug components. Others are pursuing different cancer-associated proteins. |

| | | |
|---|---|---|
| | 방사성 동위원소를 종양에 전달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러한 특징이 "더 강력한 암 살상 및 표적 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추적인 연구는 2분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br><br>리링크 파트너스의 애널리스트 파이살 쿠르시드는 화요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약은 "차세대 버전의 플루빅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br><br>두 회사는 기존 파트너십을 통해 특정 고형 종양에 대한 1상 시험을 진행 중인 다른 방사성 의약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퓨전은 초기 단계 시험 중인 다른 두 가지 후보 물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br><br>이번 계약으로 AstraZeneca는 방사성 의약품을 제조하고 방사성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대규모 생산이 까다롭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br><br>쿠르시드는 "이번 인수는 Fusion의 선도 프로그램과 동위원소 공급 및 제조에 대한 전략적 통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대형 제약사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자원"이 향후 후기 단계의 임상시험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Fusion, which has been working with AstraZeneca since 2020, is among those chasing Pluvicto. Its lead drug is being developed for a form of metastatic prostate cancer and is currently in Phase 2 testing. Fusion's drug delivers a different radioactive isotope to tumors than Pluvicto, a characteristic AstraZeneca said may make for "more potent cancer killing and targeted delivery." A pivotal study is expected to begin in the second quarter.<br><br>The drug "holds the promise of being a next-generation version" of Pluvicto," wrote Leerink Partners analyst Faisal Khurshid, in a Tuesday note to investors.<br><br>Through their existing partnership, the two companies also have a different radiopharmaceutical in Phase 1 testing for certain solid tumors. Fusion has two other candidates in early-stage trials as well.<br><br>The deal also gives AstraZeneca the capabilities to manufacture radiopharmaceuticals and supply the radioactive materials. Both are critical, given the drugs are tricky to produce at scale and supplies are limited.<br><br>"We believe the acquisition recognizes the value of Fusion's lead program as well as strategic control over isotope supply and manufacturing," |

| | | |
|---|---|---|
| | | Khurshid wrote, adding that the “depth of resources” offered by a large pharmaceutical company like AstraZeneca should “help with the execution” of the coming late-stage trial. |
| BioSpace | 아스트라제네카, 2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거래로 퓨전 인수, 방사성 의약품 인수 행렬 합류<br><br>아스트라제네카는 화요일, 뜨거운 방사성 의약품 종양학 분야에서 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최대 24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로 퓨전 파마슈티컬스(Fusion Pharmaceuticals)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br><br>이번 계약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퓨전의 모든 발행 주식을 주당 21달러에 현금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총 거래 가치는 약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 가격은 월요일 Fusion의 종가 대비 97%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또한 미공개 규제 마일스톤을 달성한 후 지급되는 주당 3달러의 우발적 가치 권리를 추가했습니다.<br><br>최대 잠재적 우발 가치 지급액을 포함하면 인수 가치는 최대 24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 AstraZeneca Buys Fusion in Potential $2B Deal, Joins Radiopharma Buying Spree<br><br>AstraZeneca announced on Tuesday that it is acquiring Fusion Pharmaceuticals in a deal potentially worth up to $2.4 billion to bolster its cancer portfolio in the hot radiopharma oncology space.<br><br>Under the agreement, AstraZeneca will buy all of Fusion’s outstanding shares for $21 apiece in cash, yielding a total deal value of approximately $2 billion. The purchase price represents a 97% premium to Fusion’s closing market price on Monday. AstraZeneca is also adding a contingent value right of $3 per share, payable after achieving an undisclosed regulatory milestone.<br><br>Including the maximum potential contingent value payments, the acquisition value could reach up to $2.4 billion, which would be a 126% premium to Fusion’s closing price on Monday. |

| | | |
|---|---|---|
| | 월요일 Fusion의 종가에 126%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입니다.<br><br>Fusion의 CEO인 John Valliant는 성명에서 이번 인수를 통해 "방사성 접합체에 대한 Fusion의 전문성과 역량"과 AstraZeneca의 "저분자 및 생물학적제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리더십"이 결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의 주요 목표는 "환자 치료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방사성 접합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br><br>양사는 Fusion의 주주 승인 및 기타 관례적인 거래 종결 조건에 따라 2024년 2분기에 거래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Fusion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완전 소유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br><br>이번 인수의 핵심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을 위해 개발 중인 Fusion의 선도적인 방사성 결합체 프로그램인 FPI-2265입니다. 이 바이오테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FPI-2265는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전립선 특이적 막 항원(PSMA)을 표적으로 합니다.<br><br>FPI-2265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225가 분해되면서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 표적 암세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킵니다. 퓨전은 현재 진행성 질환이 확인된 mCRPC 환자를 대상으로 | Fusion CEO John Valliant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acquisition will combine “Fusion’s expertise and capabilities in radioconjugates” with AstraZeneca’s “leadership in small molecules and biologics engineering.” The main goal of the deal is to develop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 therapies “with the aim of transforming patient outcomes.”<br><br>The partners expect to close the transaction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pending the approval of Fusion’s shareholders and other customary closing conditions. Once the transaction has been completed, Fusion will operate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AstraZeneca.<br><br>At the core of the acquisition is Fusion’s lead radioconjugate program FPI-2265, which is being developed for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According to the biotech’s website, FPI-2265 targets the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 which is typically expressed in prostate cancer cells.<br><br>FPI-2265 carries actinium-225, a radioisotope that emits alpha particles as it degrades, causing irreparable damage to the targeted cancer cell. Fusion is currently running a Phase II clinical trial |

| | | |
|---|---|---|
| | FPI-2265를 시험하는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br><br>FPI-2265 외에도 퓨전은 항-IGF-1R FPI-1434와 소분자 방사성 접합체 FPI-2059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악티늄 기반 방사성의약품으로 고형 종양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퓨전을 인수함으로써 최근 몇 달 동안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업계 강자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br><br>2023년 10월, 릴리는 14억 달러를 들여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인수했으며, 포인트 바이오파마의 방사성 리간드 자산 파이프라인에는 FPI-2265와 마찬가지로 PSMA를 표적으로 하고 mCRPC에 대해 연구 중인 PNT200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퓨전의 후보물질과 달리 PNT2002는 베타 방출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튬-177을 사용합니다.<br><br>BMS는 2023년 12월 레이즈바이오와 동급 최초이자 동급 최고의 잠재적 액티늄 기반 방사선 치료제를 인수하기 위해 3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가장 성숙한 프로그램인 RYZ101은 SSTR2를 표적으로 하며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과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testing FPI-2265 in mCRPC patients with documented progressive disease.<br><br>In addition to FPI-2265, Fusion is also advancing the anti-IGF-1R FPI-1434 and the small molecule radioconjugate FPI-2059. Both are actinium-based radiopharmaceuticals and are being trialed for solid tumors.<br><br>By acquiring Fusion, AstraZeneca follows in the footsteps of fellow industry heavy-hitters Eli Lilly and Bristol Myers Squibb, which in recent months have also made hefty investments in the radiopharma space.<br><br>In October 2023, Lilly dropped $1.4 billion to acquire Point Biopharma and its pipeline of radioligand assets including PNT2002, which like FPI-2265 also targets PSMA and is being studied for mCRPC. Unlike Fusion's candidate, however, PNT2002 uses the beta-emitting radioisotope lutetium-177.<br><br>BMS in December 2023 committed a net of $3.6 billion to buy RayzeBio and its potential first-in-class and best-in-class actinium-based radiotherapeutics. RYZ101, its most mature program, targets SSTR2 and is being developed for 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and non-small cell lung cancer. |

| | | |
|---|---|---|
|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화요일의 퓨전 인수는 희귀질환 치료제 업체인 아몰리트 파마를 10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여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1을 활성화하는 바이오테크의 후기 단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후보물질인 에네보파라타이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네보파라타이드는 현재 임상 3상 연구 중이며, 올해 말에는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For AstraZeneca, Tuesday's acquisition of Fusion follows soon after it bought rare disease player Amolyt Pharma for $1.05 billion, gaining access to the biotech's late-stage hypoparathyroidism candidate eneboparatide, which activates the parathyroid hormone receptor 1. Eneboparatide is currently in a Phase III study with topline data expected by the end of the year. |
| FirstWord | 아스트라제네카, 방사성 의약품 파트너를 인수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불하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약 20억 달러를 지불하고 Fusion Pharmaceuticals와 악티늄-225 기반 자산 파이프라인을 인수하는 대규모 구매를 단행했습니다. 두 회사는 암 치료를 위한 차세대 알파 방출 방사성 의약품과 병용 요법을 개발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협력했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의 종양학 R&D 총괄 부사장인 수잔 갤브레이스는 화요일 "암 환자의 30~50%가 치료 중 어느 시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퓨전 인수는 차세대 방사성 접합체를 통해 이러한 | **AstraZeneca to pay $2B to buy radiopharmaceuticals partner**<br><br>AstraZeneca is making its first major purchase in the radiopharmaceuticals space, forking out around $2 billion to buy Fusion Pharmaceuticals and its pipeline of assets based on actinium-225. The companies first joined forces in 2020 to develop next-generation alpha-emitting radiopharmaceuticals and combination therapies for the treatment of cancer.<br><br>Susan Galbraith, executive vice president of oncology R&D at AstraZeneca, said Tuesday that "between 30% and 50% of patients with cancer…receive radiotherapy at some point |

| | | |
|---|---|---|
| | 치료 측면을 혁신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br>Fusion의 주요 후보물질인 FPI-2265는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2상 개발 중인 PSMA를 표적으로 하는 방사성 접합체입니다. 중간 단계의 TATCIST 연구 결과는 다음 달 미국 암 연구 협회(AACR) 연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Jefferies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이 데이터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루테튬 177 비피보타이드 테트라탁탄)와 "상대적으로 동등하거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br><br>거래에 제조 역량 포함<br><br>새로운 전문 지식 및 R&D와 함께, 퓨전 인수를 통해 악티늄 기반 방사성 접합체의 제조 및 공급망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갤브레이스는 퓨전이 이미 주요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제의 제조 역량도 갖추고 있어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존 파이프라인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br>합의된 조건에 따라 AstraZeneca는 3월 18일 종가 대비 97%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21달러에 퓨전의 모든 발행 주식을 현금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거래에는 규제 마일스톤과 연계된 현금 주당 3달러의 우발적 가치 권리도 | during treatment, and the acquisition of Fusion furthers our ambition to transform this aspect of care with next-generation radioconjugates."<br><br>Fusion's lead candidate, FPI-2265, is a radioconjugate targeting PSMA in Phase II development for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Results from the mid-stage TATCIST study are set to be presented at next month's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annual meeting. Jefferies analysts recently said that they are confident the data "will look relatively in-line/competitive" to Novartis' Pluvicto (lutetium 177 vipivotide tetraxetan).<br><br>**Deal includes manufacturing capacity**<br><br>Along with new expertise and R&D, the purchase of Fusion will provide it with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capabilities in actinium-based radioconjugates. Galbraith indicated that Fusion already has agreements with key suppliers, along with manufacturing capacity for these treatments, which she suggested could also be combined with AstraZeneca's existing pipeline.<br><br>Under the agreed terms, AstraZeneca will acquire all of Fusion's outstanding stock for $21 per share in cash, representing a 97% premium to the closing price on March 18. The deal also includes |

| | | |
|---|---|---|
| | 포함되어 있어 총 거래 가치는 약 24억 달러에 달합니다.<br><br>2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Fusion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완전 소유 자회사가 되어 캐나다와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br><br>강력한 파이프라인<br><br>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마크 퍼셀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번 인수를 "암 치료를 위한 '스마트 화학' 플랫폼을 확장하는 흥미로운 단계"라고 말하며, 퓨전이 방사성 리간드 치료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임상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퓨전의 실험 약물에는 각각 IGF-1R과 NTSR1을 발현하는 고형 종양에 대한 초기 단계의 개발 중인 FPI-1434와 FPI-2059가 포함됩니다.<br><br>"이번 거래는 표적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에 대한 대형 제약사의 지속적인 열망을 반영합니다."라고 RBC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 Gregory Renza는 말합니다.<br><br>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최근 BMS의 41억 달러 규모의 레이즈바이오 인수, 일라이 릴리의 14억 달러 규모의 포인트 바이오파마 인수 등 다양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며 급격한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스포트라이트 | a contingent value right of $3 per share in cash linked to a regulatory milestone, bringing the total value of the transaction to about $2.4 billion.<br><br>Upon closing – which is expected in the second quarter – Fusion will becom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AstraZeneca, with operations continuing in Canada and the US.<br><br>**Strong pipeline**<br><br>Morgan Stanley analyst Mark Purcell called AstraZeneca's move an "exciting step to expand its 'smart chemo' platform for the treatment of cancer," adding that Fusion has one of the strongest clinical pipelines in radioligand therapy. The latter's experimental drugs include FPI-1434 and FPI-2059, which are in early-stage development for solid tumours expressing IGF-1R and NTSR1, respectively.<br><br>"This deal reflects the continued appetite from large pharma for targeted radiopharmaceutical therapeutics," commented RBC Capital Markets analyst Gregory Renza.<br><br>Poised for rapid expansion, the global radiopharmaceutical market has seen a flurry of recent deals, including Bristol Myers Squibb's $4.1-billion purchase of RayzeBio and Eli Lilly's $1.4-billion acquisition of POINT Biopharma. For |

| | | |
|---|---|---|
| | 온: 전립선암에서 알파 방출 물질의 증가를 읽어보세요. | further analysis, read Spotlight On: Alpha emitters are on the rise in prostate cancer. |
| Pharmaceutical Technology | 아스트라제네카, 24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방사성 접합 바이오테크 퓨전 인수<br><br>아스트라제네카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넘어 노바티스가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br><br>이 거대 제약회사는 방사성 결합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최대 24억 달러에 Fusion Pharmaceuticals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br><br>캐나다의 바이오테크 기업인 Fusion은 항체, 펩타이드 또는 기타 분자를 사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의약품의 일종인 방사성 접합체 개발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를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과 같은 기존 요법에 비해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3월 19일자 보도 자료에서 방사성 접합체가 "최근 몇 년간 암 치료의 유망한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AstraZeneca to acquire radioconjugate biotech Fusion in $2.4bn deal**<br><br>As AstraZeneca looks to move past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it will enter a market firmly controlled by Novartis.<br><br>AstraZeneca has agreed to acquire Fusion Pharmaceuticals for up to $2.4bn as the pharma giant looks to broaden its portfolio of radioconjugates.<br><br>Canadian biotech Fusion specialises in developing radioconjugates, a type of medicine that delivers radioactive isotopes directly to cancer cells using antibodies, peptides or other molecules. By precisely targeting cancer cells, this treatment approach has advantages over traditional regimens such as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in that it does not damage healthy cells.<br><br>Radioconjugates have emerged as a “promising modality in cancer treatment over recent years”, AstraZeneca stated in a 19 March press release. |

| | | |
|---|---|---|
| | 퓨전에 대한 계약에는 20억 달러의 선불 현금과 4억 달러의 특정 규제 마일스톤 기반 지불금이 포함됩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Fusion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AstraZeneca의 완전 소유 자회사가 될 것입니다.<br><br>Fusion의 주요 자산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전립선 특이적 막 항원(PSMA)을 표적으로 하는 방사성 접합체 FPI-2265입니다. 액티늄-225 기반 치료법은 현재 임상 2상 시험 중입니다. 이 치료법은 세포 독성 페이로드인 알파 입자를 종양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퓨전의 방사성 접합체 파이프라인과 함께 이번 인수로 새로운 연구 개발(R&D) 전문성과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분야에서 '방사성 리간드'라는 자산을 보유한 노바티스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세포 표적 리간드에 연결됩니다. 이 분야에서 노바티스의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전립선암 치료제로 승인한 방사성 리간드인 플루빅토(루테튬 루 177 비피보타이드 테트라탁세탄)입니다. 노바티스는 플루빅토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 일시적인 약물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 The deal for Fusion includes an upfront cash payment of $2bn and a specified regulatory milestone-based payment of $400m. Following the deal, Fusion will becom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AstraZeneca while continuing its operations in Canada and the US.<br><br>Fusion's lead asset is FPI-2265 – a radioconjugate that targets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 a protein found in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The actinium-225-based therapy is currently in a Phase II trial. It works by emitting alpha particles, a cytotoxic payload, to tumours.<br><br>Along with Fusion's pipeline of radioconjugates, AstraZeneca said the deal will bring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rtise and supply chain strengthening.<br><br>AstraZeneca will face competition in this space from Novartis, which calls its assets in this area 'radioligands'. Here, the radioisotope is connected to a cell-targeting ligand. One of Novartis' leading drugs in this space is Pluvicto (lutetium Lu 177 vipivotide tetraxetan), a radioligand approv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for prostate cancer. Novartis struggled to keep up with demand for Pluvicto, leading to a temporary drug shortage last year. |

| | | |
|---|---|---|
| | 글로벌데이터의 제약 인텔리전스 센터에 따르면 플루빅토는 2030년까지 4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br><br>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방사성 리간드 역시 2018년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의 루테테라(Lutathera, lutetium Lu 177 dotatate)입니다. 노바티스는 이 치료제의 추가 적응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에 종양학 제품에서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2023 회계연도 매출의 37%를 차지합니다. 이 제약회사의 퓨전 인수 움직임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종양학 강화 움직임 중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에는 중국 CAR-T 바이오테크 기업인 Gracell을 1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br><br>이러한 움직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M&A 활동 증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Gracell 인수와 같은 달에 AstraZeneca는 11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RSV 백신 개발사인 Icosavax를 인수했습니다. 이달 초, 이 대형 제약사는 프랑스의 희귀질환 스타트업인 Amolyt를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의 종양학 R&D 수석 부사장인 수잔 갤브레이스는 Fusion 인수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퓨전과 함께 전립선암에 대한 잠재적인 새로운 치료제로서 FPI-2265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퓨전의 혁신적인 | Pluvicto is estimated to see sales of $4.5bn by 2030, according to GlobalData's Pharma Intelligence Centre.<br><br>The other radioligand on the market is also from Novartis, called Lutathera (lutetium Lu 177 dotatate), which gained FDA approval for neuroendocrine tumours in 2018. Novartis is eyeing further indications for the therapy.<br><br>AstraZeneca made $17bn in sales from its oncology products last year, accounting for 37% of FY 2023 revenue. The drugmaker's move to acquire Fusion is not the only oncology-strengthening move it has made recently. In December 2023, the company acquired Chinese CAR-T biotech Gracell for $1.2bn.<br><br>The moves are also part of an uptick in M&A activity for AstraZeneca. In the same month as the Gracell acquisition, AstraZeneca purchased RSV vaccine developer Icosavax in a $1.1bn deal. Earlier this month, the big pharma completed a $1bn acquisition for French rare diseases start-up Amolyt.<br><br>While announcing the Fusion acquisition, AstraZeneca's oncology R&D executive vice-president Susan Galbraith said: "Together with Fusion, we have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

| | | |
|---|---|---|
| | 악티늄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사성 접합체를 기초 요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the development of FPI-2265 as a potential new treatment for prostate cancer, and to harness their innovative actinium-based platform to develop radioconjugates as foundational regimens.” |
| Fierce | 아스트라제네카, 20억 달러 규모의 방사성 의약품 기업 인수로 퓨전과 합병<br><br>아스트라제네카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통해 Fusion Pharmaceuticals를 자사의 암 사업부와 합병했습니다.<br><br>Fusion의 파이프라인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 치료제로 2상 개발 중인 PSMA 표적 방사선 치료인 FPI-2265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FPI-2265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와 같은 베타 요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알파 방사성 의약품인 악티늄-225를 전달합니다. 퓨전은 PSMA를 발현하는 세포에 페이로드를 전달함으로써 mCRPC의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2020년에 퓨전과 협력 관계를 맺어 표적 알파 요법 및 약물 조합을 연구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의약품에 | **AstraZeneca melds with Fusion in $2B radiopharma buyout**<br><br>AstraZeneca is adding to the explosion of interest in radiopharmaceuticals, inking a $2 billion buyout to meld Fusion Pharmaceuticals with its cancer unit.<br><br>Fusion’s pipeline is led by a PSMA-directed radiotherapy, FPI-2265, that is in phase 2 development as a treatment for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FPI-2265 delivers actinium-225, an alpha radiopharmaceutical that emits more energy than beta therapies such as Novartis’ Pluvicto. By getting the payload to cells that express PSMA, Fusion believes it can improve outcomes in mCRPC.<br><br>AstraZeneca formed a collaboration with Fusion in 2020, securing the chance to work on targeted alpha therapies and drug combinations. But, with interest in radiopharmaceuticals intensifying, it has opted to buy |

| | | |
|---|---|---|
| |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트너십에 의존하는 대신 퓨전을 완전히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br>인수 금액은 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월요일 Fusion의 종가에 97%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오테크가 특정 규제 마일스톤을 충족할 경우 퓨전 주주들에게 4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br><br>퓨전은 플루빅토 치료 후 환자를 대상으로 FPI-2265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이 바이오테크는 임상 2상 시험에서 전립선암 바이오마커인 전립선 특이항원(PSA)이 3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신약 후보 물질은 플루빅토 치료 후 전이성 전립선암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최초의 액티늄-PSMA 표적 방사선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br><br>방사성 의약품 붐을 일으킨 노바티스는 2022년 플루빅토의 승인으로 구축한 선도적 입지를 바탕으로 경쟁 후보를 개발 중입니다. 최근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러한 치료법이 전이성 결절성 전립선암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 Fusion outright rather than rely on the partnership for programs.<br><br>The takeover is worth $2 billion upfront, a 97% premium to Fusion's closing price Monday. AstraZeneca could pay Fusion shareholders a further $400 million if the biotech meets a certain regulatory milestone.<br><br>Fusion has focused development of FPI-2265 on post-Pluvicto patients. The biotech expects to see a 30% to 50% reduction in PSA, a prostate cancer biomarker, in the phase 2 trial. If everything goes to plan, the drug candidate could become the first actinium-PSMA-targeted radiotherapy approved for post-Pluvicto use in mCRPC.<br><br>Novartis, which helped kick-start the radiopharmaceutical boom, has a rival candidate in development as it seeks to build on the leadership position it established with the approval of Pluvicto in 2022. A recent paper in The Lancet Oncology suggested such therapies are effective in mCRPC.<br><br>FPI-2265 gives AstraZeneca an early opportunity to generate a return on its investment, but the full value of the acquisition may take longer to realize. Fusion has other molecules in development, some of which AstraZeneca knows well from its collaboration. As |

| | | |
|---|---|---|
| | FPI-2265는 아스트라제네카에게 투자 수익을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수의 전체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Fusion은 개발 중인 다른 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AstraZeneca가 협업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공학 기업이 액티늄 공급에 투자하여 알파 이미터의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차단했다는 점입니다.<br><br>Fusion은 자체 시설에서 임상용 GMP 선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생산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이 시설에는 다른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과는 다른 특수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듭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퓨전 인수를 통해 이러한 장벽을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스웨덴 제약회사는 방사성 의약품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M&A를 선택한 일련의 대형 제약회사 중 가장 최근의 기업입니다.<br><br>일라이 릴리는 14억 달러에 포인트 바이오파마 글로벌을 인수하여 알파 및 베타 자산과 공급 역량을 추가했습니다. BMS는 알파 전문 기업 레이즈바이오(RayzeBio)에 41억 달러를 | importantly, the biotech has invested in the supply of actinium, insulating it from a bottleneck that could throttle the availability of alpha emitters.<br><br>Fusion is producing clinical, GMP doses at its own facility and works with a network of service providers. Radioisotopes have short half-lives and are made at relatively few production sites globally. The facilities require specialized capabilities distinct from those needed to produce other drug modalities. All those factors create barriers to entry that could limit competition.<br><br>Buying Fusion will allow AstraZeneca to vault some of those barriers. The Anglo-Swedish drugmaker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Big Pharma companies to identify M&A as the way to participate in the rush to realize the potential of radiopharmaceuticals.<br><br>Eli Lilly added alpha and beta assets and supply capabilities by acquiring Point Biopharma Global for $1.4 billion. Bristol Myers Squibb joined the party by offering $4.1 billion for alpha specialist RayzeBio. The recent flurry of activity was preceded by Novartis' $3.9 billion takeover of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in 2017. |

| | | |
|---|---|---|
| | 제시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최근의 활발한 활동은 2017년 노바티스가 39억 달러에 첨단 가속기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한 것이 그 이전입니다. | |